

안보관광 명물 기적 일군 '내일의 기적소리'

<임진강 옛 철교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개장 1년 22만명 방문
총탄 자국 생생... 분단체험 교육장
관계자 "DMZ관광 콘텐츠 늘릴것"

남북 분단의 상징이자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 통일의 희망을 새기며 민통선 내 임진강 천혜의 비경을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는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가 개장 1년 만에 방문객 20만명을 돌파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경의선 철교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를 다녀간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 모두 21만9683명으로 파악됐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돼 5개의 교각만 남은 경의선 구간 중 하나인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 임진강 DMZ 일원의 볼거리·즐거거리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공식 명칭인 '내일의 기적소리'는 고은 시인이 "통일을 염원하며 내일의 기적소리가 오늘의 기적소리가 되길 바란다"라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아 명명했다.



개장 1년 만에 방문객 20만명을 돌파한 경기 파주 임진강 내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 /제공=경기도

특히 휴정협정 이후 국군포로 1만2733명이 이 다리를 통해 귀환했고, 1998년 통일대교 개통 전까지 민통선 이북과 판문점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점에서 한국 분단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이 같은 상징성을 활용해 임진강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 한국을 염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21일 현판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장 이후에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시범운영 기간(2017년 12월 21일~1월 19일)에만 3만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다녀가기도 했다.

주요 콘텐츠는 증기기관차 객차, 철로 구간, 매직글라스, 전망대 등이며, 전쟁 이전 기

차가 남북을 오가던 온전한 형태의 철교를 재현해 과거와 현재, 미래로 꾸며진 다리를 걸어보며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바닥에는 특수 유리를 설치해 전쟁 당시 총탄 자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무엇보다 민통선 내 풍광을 국방부의 별도 출입허가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매력과 경험을 제공한다.

김동욱 경기도 DMZ정책담당관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평화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만큼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훌륭한 안보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지구상에 단 하나 뿐인 DMZ관광의 묘미를 더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파주 문산을 마정리 1400-5 일원 임진강 관광지에 위치해 있다. 개장시간은 11~2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10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원=김주홍 기자

경기일보

2018년 1월 9일 화요일 003면 종합

민통선 내 임진강 비경 한눈에...

'내일의 기적소리' 개장 1년 만에 20만명 발길

민통선 내 임진강의 비경을 자유롭게 조망할 수 있는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가 개장 1년 만에 방문객 20만명을 돌파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내일의 기적소리를 다녀간 방문객은 21만 9천 683명으로 집계됐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돼 5개의 교각만 남은 경의선 구간 중 하나인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한 것이다. 공식 명칭인 내일의 기적소리는 고은 시인이 '통일을 염원하며 내일의 기적소리가 오늘의 기적소리가 되길 바란다'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아 명명됐다. 특히 휴정협정 이후 국군 포로 1만2천733명이 이곳을 통해 귀환했고

1998년 통일대교 개통 전까지 민통선 이북과 판문점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점에서 한국 분단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주요 콘텐츠는 증기기관차 객차, 철로구간, 매직글라스, 전망대 등이며 전쟁 이전 철교 형태를 재현, 과거와 현재, 미래로 꾸며진 다리를 걸어보며 민족상잔의 아픔과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있다.

김동욱 도 DMZ정책담당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DMZ 관광의 묘미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관광객들이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에서 임진강의 비경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내일의 기적소리' 임진각 명소 등극

개장 1년 만에 관광객 22만명 다녀가 민통선 풍광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

민통선 내 임진강의 비경을 자유로이 조망할 수 있는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가 개장 1년 만에 방문객 20만명을 돌파했다.

경기도는 2017년 1년 동안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를 다녀간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 총 21만9683명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돼 5개의 교각만 남은 경의선 구간 중 하나인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 임진각 DMZ 일원의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휴정협정 이후 국군 포로 1만2733

명이 이곳을 통해 귀환했고 98년 통일대교 개통 전까지 민통선 이북과 판문점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점에서 한국 분단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도는 이 같은 상징성을 활용, 임진각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한국을 염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21일 현판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개장 이후 최초 1달간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는 폭발적인 관심에 힘입어 약 3만여명이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다.

주요 콘텐츠로는 증기기관차 객차, 철로구간, 매직글라스, 전망대 등으로 전쟁 이전 철교 형태를 재현, 과거와 현재, 미래로 꾸며진 다리를 걸어보며 민족상잔의 아픔과 역사를 몸소 체험해 볼수 있는 특징이 있다.

바다에는 특수 유리를 설치해 전쟁 당시 탄흔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민통선 내 풍광을 국방부의 별도 출입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김동욱 경기도 DMZ정책담당관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만큼, 많은 분들이 이곳

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훌륭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DMZ 관광의 묘미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파주 문산읍 마정리 1400-5 일원 임진각 관광지내에 위치해있으며 개장시간은 11~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요금은 성인 2000원, 12세 이하 소인 1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031-956-8305)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강성준 기자 skang15@incheonilbo.com



개장 1년 '내일의 기적소리' 방문객 20만 명 돌파 민통선 내 임진강의 비경을 자유로이 조망할 수 있는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가 개장 1년 만에 방문객 20만 명을 돌파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1년여간 독개다리 스카이워크를 다녀간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 총 21만9천683명이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돼 5개의 교각만 남은 경의선 구간 중 하나인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 임진각 DMZ 일원의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중부일보

2018년 1월 9일 화요일 B01면 종합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1년만에 20만명 돌파

민통선내 임진강 비경 인기

민통선 내 임진강의 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 방문객이 개장 1년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내일의 기적소리 방문객 집계 결과, 21만9천683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조성한 내일의 기적소리는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돼 5개의 교각만 남은 경의선 구간중 하나인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 임진각 DMZ 일원의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공식 명칭인 '내일의 기적소리'는 고은 시인이 "통일을 염원하며 내일의 기적소리가 오늘의 기적소리가 되길 바란다"라는 미래지향적 의미를 담아 만

들었다. 휴정협정 이후 국군 포로 1만 2733명이 이곳을 통해 귀환했고, 1998년 통일대교 개통 전까지 민통선 이북과 판문점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점에서 한국 분단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내일의 기적소리에는 증기기관차 객차, 철로구간, 매직 글라스, 전망대 등으로, 전쟁 이전 철교 형태를 재현, 과거와 현재, 미래로 꾸민 다리를 걸어보며 민족상잔의 아픔과 역사를 몸소 체험해 볼 수도 있다.

김동욱 경기도 DMZ정책담당관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둔 만큼,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훌륭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DMZ 관광의 묘미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민통선 독개다리 ‘내일의 기적소리’ 개장 1년만에 내방객 21만명 돌파

민통선 내 임진강의 비경을 자유로이 조망할 수 있는 독개다리 스카이워크 ‘내일의 기적소리’가 개장 1년만에 방문객 20만 명을 돌파했다.

도는 지난해 1년간 ‘내일의 기적소리’를 다녀간 방문객을 집계한 결과 총 21만9천683명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임진강비경 자유로이 조망가능 색다른 경관 찾아 관광객 밀물

‘내일의 기적소리’는 6·25전쟁 당시 폭격으로 파괴돼 5개의 교각만 남은 경의선 구간중 하나인 ‘독개다리’를 길이 105m, 폭 5m 규모로 복원, 임진각 DMZ 일원의 볼거리·즐길거리를 확충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이다.

특히 휴정협정 이후 국군 포로 1만 2천733명이 이곳을 통해 귀환했고, 1998년 통일대교 개통 전까지 민통선 이북과 관문점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는 점에서 한국 분단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시설이기도 하다.

도는 이 같은 상징성을 활용, 임진

각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일한국을 염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6년 12월 21일 현관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주요 콘텐츠는 증기기관차 객차, 철로구간, 매직글라스, 전망대 등이다.

전쟁 이전 철교 형태를 재현해 과거와 현재, 미래로 꾸며진 다리를 걸어보며 민족상잔의 아픔과 역사를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바닥에는 특수 유리를 설치해 전쟁 당시 탄흔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민통선 내 풍광을 국방부의 별도 출입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내일의 기적소리’는 파주 문산읍 마정리 1400-5 일원 임진각 관광지내에 위치해있다.

개장시간은 11~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요금은 성인 2천원,

12세 이하 소인 1천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031-956-8305)로 문의하면 된다.

/이연우기자 27yw@